

 국토교통부	보 도 자 료		
	배포일시	2020. 11. 26 총 3매(본문3)	
담당 부서	국토교통부	해외건설 정책과	·과장 박재순, 사무관 이영주, 주무관 이주원 ·☎ (044) 201-3517, 3522
		해외건설 지원과	·과장 김기용, 사무관 이성훈, 주무관 김혜지 ·☎ (044) 201-3527, 3531
	기획재정부	국제경제과	·과장 최지영, 사무관 정미현 ·☎ (044) 215-7631
보 도 일 시		2020 11월 27일 조건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 ※ 통신·방송·인터넷은 11월 26일 11:00 이후 보도 가능	

코로나-19 경제위기 딛고 해외건설수주 목표 300억불 달성

- 11.26일 기준, 작년 동기 대비 68% 증가한 302억불로 집계

- 26일 김현미 장관, 18개 건설사와 업계 간담회...내년도 해외수주 전략 논의

□ 국토교통부(장관 김현미)와 기획재정부(부총리 겸 장관 홍남기)는 11.26일부로 올해 해외건설 수주액이 코로나-19 등 여러 어려움 속에도 300억불을 넘겼다고 밝혔다.

* 해외건설수주액(억불) : ('16) 282, ('17) 290, ('18) 321, ('19) 223

* 과거 5년간 11월 누계 해외건설수주액(억불)

- 전년동기 수주(억불) : ('16.11) 233, ('17.11) 234, ('18.11) 255, ('19.11) 180, ('20.11) 302

□ 올해 해외건설수주는 코로나-19 위기 속에 저유가, 세계경기 불확실성 증가로 인한 발주공사 연기·감소와 국가별 봉쇄조치 등에 따라 당초 부정적인 전망이 지배적이었다.

○ 이에 '20.6월 정부는 해외수주 위축에 대비한 적극적 보완책으로서 '20년 해외수주 300억불을 목표로 「해외수주 활성화 방안」을 대외경제장관회의를 통해 마련하였고 그간의 해외수주 하락세를 반등시키기 위한 적극적인 의지를 담아 전방위적인 수주 지원 노력을 기울여 왔다.

- 우리 해외건설업체와 정부, 공공기관이 “팀코리아(Team Korea)”를 이루어 총력을 다 한 결과, 연초 중동지역 대규모 토목·플랜트(산업설비) 수주를 시작으로, 11월 중남미지역 대형 인프라사업 수주까지 최종적으로 해외수주 300억불을 넘기는 성과를 이뤄냈다.

□ 이번 해외건설 수주액 302억불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,

- 지역별로는, 아시아(35.6%)·중동(34.3%)이 여전히 해외건설의 주요 시장을 차지하는 가운데, **중남미 지역의 수주규모가 크게 늘었다.** (중남미 비중 : '19 0.6%(1.3억불) → '20 23%(68.9억불))

* 중남미 주요수주 : 멕시코 도스보카즈 정유공장(37억불), 파나마 메트로(28.4억불) 등

- 공종별로는, 플랜트(산업설비) 수주가 절반 이상(56.9%)으로 여전히 **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,**

* 해외건설 공종별 비중(11.26 기준) : 산업설비(56.9%), 토목(22.7%), 건축(15.5%), 엔지니어링(2.5%), 전기(2.2%), 통신(0.2%)

- 엔지니어링 분야에서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운영유지 사업(7,580만불), 태국 3개공항 연결 고속철도 감리(514만불) 등 **사업영역을 다각화하는 성과를** 도출하였다.

- 투자개발사업(PPP)의 경우 카자흐스탄 알마티 순환도로 운영유지 사업(7,580만불) 등 **신시장 개척의 성과가 있었으며,** 을 한해 한-방글라데시 플랫폼 등 정부간 협력기반이 마련됨에 따라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성과가 도출될 것으로 기대된다.

* 투자개발사업 수주추이 : '18년 12억불 → '19년 17억불 → '20.11.26 4.6억불

□ 금년도 수주 중 눈여겨볼 사항은,

- 파나마에서 역대 최대규모로 발주한 '**파나마 메트로 3호선 사업**'을 우리기업이 수주하여 **파나마시티의 교통난 해소**에 기여할 계획이며,

* 파나마메트로 3호선(28.4억불, 현대건설) : 파나마시티 내 25km 모노레일 건설

- 멕시코에서 '**도스보카즈 정유공장**'의 경우, 우리기업의 기본설계(FEED) 역량을 바탕으로 시공(EPC)까지 수주하였다.

* 멕시코 도스보카즈 정유공장(37억불, 삼성ENG) : 34만배럴 정유공장 신설

- 사우디·우즈벡에서는 우리기업이 시공(EPC)에 머물지 않고, 기본 설계(FEED)까지 수주하는 성과를 이뤄냈다.

* (우즈벡) 부하라 정유공장(720만불, SK건설) / (사우디) PDH 플랜트(755만불, SK건설)

○ 또한, 폴란드에서는 바르샤바 신공항 컨설팅사업의 전략적 자문사로 선정(인천국제공항공사)되는 성과도 거뒀다.(20.12월 계약예정)

□ 국토교통부 김현미 장관은 올해 해외수주 300억불 달성을 계기로 11월 26일 기획재정부, 주요 건설기업*(16개사), 해외건설협회 및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(KIND) 대표가 참석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.

* 참석기업(가나다 순) : GS건설, SK건설, 대림산업, 대우건설, 도회ENG, 동아지질, 동일건설, 삼성ENG, 삼성물산, 쌍용건설, 엘티삼보, 유신, 평화ENG, 현대건설, 현대ENG, 희림건축

○ 이번 간담회는 올해 해외건설 수주현황을 점검하면서 내년도 정부 차원의 수주지원방안을 논의하고, 코로나-19에 따른 해외건설 현장별 애로사항에 대한 대응방안 모색을 위해 마련되었다.

○ 김현미 장관은 간담회 모두발언을 통해, “코로나19로 인해 국민 모두가 힘든 때를 보내고 있는데, 우리 기업들의 노력으로 해외 건설 수주가 반등되어 매우 반갑다. 그러나, 아직도 진짜 위기는 오지 않았으며, 코로나-19에 따른 해외건설 수주영향은 내년 이후에 본격화될 수 있으므로 우리업체들이 긴장의 끈을 놓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시장개척을 해주길 당부”하였으며,

- “이번 반등의 추진동력을 유지하기 위해, 고위급 수주지원과 국내 금융지원 확대 등 모든 정책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면서, 기재부 등 관계부처와 협조하여 대외경제장관회의 등을 통해 범부처 차원에서 우리기업 수주지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노력도 병행해나갈 계획이다”라고 덧붙였다.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해외건설정책과 이영주 사무관(☎ 044-201-351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